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제언*

김 몽**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이 영 경***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관용표현은 단순한 단어들의 결합이 아니라 제3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관용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이 활용되는 주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와 현황을 고찰하였다. 한국어 교육기관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및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재와, 중국에서 제작되어 널리 사용되는 두 교재를 대상으로 관용표현의 수록 현황과 제시 방식, 학습 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으로서 관용표현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의미의 투명도를 기준으로 한 단계별 관용표현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관용표현 교육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관용표현,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 중국인 학습자, 어휘 수준, 의미의 투명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

* 이 논문은 김몽(2016)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의 제3장·5장의 논의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한류열풍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이론 및 교수법 연구는 보다 활발해지고 있고 그 성과도 적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중국인의 한국어교육 수요를 고려하면 더욱 다채롭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후문옥(2003)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종합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학습 분야로 ‘어휘’를 들었는데 이는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어휘 분야에서도 ‘관용표현’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혔다. 관용표현은 말 그대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로,¹⁾ 관용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개별적인 의미를 안다고 해도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접근이 제한적인 문화기반어휘라 할 수 있다. 관용표현에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바가지를 굶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표현인데, 이는 옛날에 마을에 전염병이 번지면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귀신을 쫓으려고 ‘바가지를 득득 굶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바가지를 굶는다고 전염병이 물러갈 리야 없겠지만 민간요법의 한 가지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바가지를 굶는 소리는 영 시끄럽고 듣기에 좋지 않아서 ‘듣기 싫다’는 공통점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바가지 굶는다’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 ‘바가지를 굶다’가 ‘시끄럽다 → 듣기 싫다 → 잔소리하다’로 유추되는, 한국인의 사고, 정서가 담긴 이러한 관용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어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1) ‘관용표현(idiom)’은 연구자나 교재에 따라 ‘관용구’, ‘관용어’, ‘관용어구’, ‘관용표현’, ‘숙어’, ‘익은말’, ‘익힘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로써 속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기문(1997), 『속담사전』, 일조각, 229.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관용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관용표현은 단순한 단어들의 결합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나 문화 등에 기반한 제3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에서는 그 학습의 난도가 높다고 보고 관용표현의 교육을 중급 이상의 단계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은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을 가진다.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 문자와 문화를 공유해 온 측면이 크다. 한자어라는 공통의 소통 수단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온바, 이는 문화기반어휘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용표현을 습득하는 데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의 교육은 이러한 학습자의 조건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본고의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중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유덕자(1998), 문금현(1998)은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가 국어학 분야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로 확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 논의라 할 수 있다. 두 연구는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후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자의 증가와 함께 한·중 관용표현의 대조와 비교분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용표현의 목록 선정, 교재 분석, 교육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술한 학습자를 중심에 둔 한국어 관용표현의

3)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이나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는 김똥(2016), 오성아(2017)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드물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이 활용되는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할 것인데, 기존의 연구들이 대개 국내 대학 교육기관에서 제작된 교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 비해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교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2.1. 한국어 교재 분석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흔히 활용되는 주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6종의 한국어 교재는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 서울대학교 『한국어1A-6B』,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1-8』과, 중국 현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중 李先汉 외 『한국어1-4』, 崔羲壽 외 『한국어 초, 중, 고급』이다. 중국에서 출판된 두 교재는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재이고 상당 수량의 관용표현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재로 개발되었으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6권으로 구성되었다. 교재의 내용 구성은 <본문>, <말하기 연습>, <활동>, <문화>, <읽기>, <쓰기>, <자기 평가>, <문법>으로 되어 있으며, 관용표현은 여러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중급 교재 <본문>의 ‘새 단어’에서 관용표현 ‘신경(을) 쓰다’를 영어 해석 ‘to pay

attention to'와 함께 제시하거나, <문법>의 설명 부분에서 '얼굴이 주먹만 하다', '손바닥만 하다', '운동장만 하다', '코딱지만 하다', '배가 남산만 하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를 나열하여 '만'이라는 보조사가 공통으로 들어간 관용표현들을 묶어 제시하거나, '언어 표현'에서 '눈이 높다, 코가 납작하다, 입이 짧다, 귀가 얇다, 얼굴이 두껍다, 손이 빠르다, 발이 넓다' 등의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묶어서 제시하는 등의 예들이 눈에 띈다. 이처럼 관용표현을 동일한 조사나 동일한 명사를 묶어 설명하거나 신체와 관련된 관용표현, 같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관용표현 등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관용표현을 말하기 연습과 어휘 늘리기, 그리고 확인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에 수록된 관용표현 목록⁴⁾

단계	관용표현
초급	꿈을 이루다, 마음에 들다, 정신이 없다, 첫눈에 반하다, 한턱 내다
중급	가슴에 콩 나다, 가슴이 뚫리다, 가슴이 무너지다, 각광을 받다, 귀가 얇다, 금 가다, 기가 막히다, 기가 죽다, 꿈도 꾸지 마, 날개가 돋치다, 내 발등을 찢고 싶다, 낫을 놓다, 눈높이를 낮추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에 선하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눈이 낮다, 눈이 높다, 눈이 빠다, 눈코 뜰 새 없다, 마음이 맞다, 마음이 사라지다, 말이 통하다, 머리에 쥐가 나다, 몸이 가볍다, 몸이 날아갈 듯이, 바람 씌다, 바람을 씌다, 발 디딜 곳이 없다, 발이 넓다, 배가 남산만 하다, 배꼽이 빠지다, 소름이 돋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다, 손바닥만 하다, 손에 넣다, 손에 잡히다, 손에 잡히지 않다, 손을 놓다, 손을 대다, 손이 많이 가다, 손이 빠르다, 손이 크다, 시치미 떤다, 신경(을) 쓰다, 앞길이 막막하다, 앞뒤가 팍 막히다, 애를 쓰다, 어깨가 무겁다, 어처구니가 없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주먹만 하다, 열 받다, 온 몸이 감전이 되다, 운동장만 하다, 이름을 날리다, 입에 달고 살다, 입이 짧다, 잘 찌다, 저울질을 하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쥐 죽은 듯, 쥐꼬리만 하다, 첫눈에 반하다, 코가 납작해지다, 코딱지만 하다, 큰 맘 먹다, 하늘이 노랗다, 한눈 팔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4) 여기에 제시된 목록은 각 교재에 나타난 관용표현을 모두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관용표현도 있다. 예컨대 위의 고려대 교재에서 '마음에 들다'는 초급과 고급에 모두 나타나므로 중복적으로 제시되었다.

단계	관용표현
고급	가슴이 미어지다, 각광 받다, 간에 기별도 안가다, 간이 붓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같은 배를 타다, 걸림돌이 되다, 고개를 돌리다, 골머리를 썩다, 골이 깊다, 굴곡이 많다, 귀가 가볍다, 귀가 짝 뜨이다, 귀가 얇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의심하다, 귓등으로 듣다, 기가 죽다, 꼬리가 길다, 꼬리를 내리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내리막길이 있다, 눈에 불이 나다, 눈을 감다, 눈치 9단,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없다, 눈치를 보다, 눈치를 채다, 독이 오르다, 돈 방식에 앓다, 돈을 먹이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마음에 들다, 마음을 모으다, 마음이 뻗히다,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맞대다, 머리를 쥐어짜다, 모 아니면 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물 건너가다, 물 건너가다, 물 만난 고기, 물거품이 되다, 물과 기름, 물에 빠진 생쥐, 밀져야 본진, 바닥을 치다, 배가 아프다, 보는 눈이 있다, 살림을 내주다, 속 차리다, 속을 안다, 손가락질을 받다, 손버릇이 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다, 손을 내밀다, 손을 떼다, 손을 벌리다, 손을 잡다, 손이 작다, 손이 크다, 시침미를 때다, 신경 쓰다, 쓸개가 빠지다,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무겁다, 어깨가 처지다, 어깨를 겨루다, 어깨를 펴다, 어깨에 힘을 주다, 오르막길이 있다, 장벽이 높다, 지갑을 열다, 찬물을 끼얹다, 첫눈에 반하다, 팔자는 그만이다, 피를 말리다, 한눈 팔다, 한 쪽에 치우치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허파에 바람 들다
합계	162항목

이 교재는 초급 단계에 6개의 관용표현이 수록되었으나 교재에서 실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록만 되어 있고 그 관용표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전혀 없이 교수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중급 단계에서도 관용표현을 제시하면서 대체로 뜻만 이해시키는 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손’에 관련된 관용표현들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뜻을 찾아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 입장에서 단순히 뜻만 이해하는 학습에 그치고 실제 말하기, 쓰기에서 문장에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서울대학교 『한국어1A-6B』

서울대 교재는 1A에서 2B는 초급에 해당하고 3A에서 4B는 중급, 5A에서 6B는 고급 수준에 해당한다. 초급 1A, 1B에는 관용표현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대화문 속에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급으로 갈수록 관용표현이 많이 제시되며 <문화 산책>이라는 영역을 통해 관용표현을 한국 문화와 관계를 지어 제시하고 있다. 중급 후반부터 고급 초반까지 <관용표현>과 <속담>을 한 과의 주제로 별도로 학습하고 있으며, 학습한 관용표현을 연습을 통해 확인 학습을 하고 있다. 고급에서는 <보충 어휘> 부분을 통해 ‘관용어 I 부터 관용어 IV’로 나누어 그림과 보충 설명(뜻 제시), 확인학습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서울대학교 『한국어1A-6B』에 수록된 관용표현 목록

단계	관용표현
초급	마음에 들다, 입맛이 없다, 한턱 내다
중급	가슴이 뚫리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골치 아프다, 귀가 가렵다, 귀가 얇다, 꿈을 이루다, 눈(이) 높다, 눈이 빠지다, 눈치가 없다, 마음이 맞다, 마음에 들다, 발이 넓다, 배꼽이 빠지다, 세상이 좁다, 세월이 쏜 살 같다, 손꼽아 기다리다, 손발이 맞다, 손을 놓다, 손을 보다, 손이 맵다, 손이 부족하다, 손이 빠르다, 손이 크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신경을 쓰다, 심장이 터지다, 알게 모르게, 앞뒤가 맞다, 얼굴이 두껍다, 입이 가뻐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짙다, 흥부 놀부
고급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뭄에 콩 나듯, 가슴을 치다, 가슴이 뚫리다, 가슴이 뛰다, 가슴이 벅차다, 가슴이 저리다, 가슴이 찢어지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강 건너 불 보듯, 거울로 삼다, 고개를 젓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골치가 아프다, 기가 막히다, 귀가 찢어질 듯하다, 귀를 기울이다, 귀에 못이 박히다, 기가 막히다, 껌이 쏟아지다, 꿈을 이루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다, 날아갈 듯이 가뻐다, 날아갈 듯이 기쁘다, 녀를 잃다, 누워서 떡 먹기다, 누워서 침 뱉기다, 눈 녹듯이 사라지다, 눈(을)붙이다, 눈에 선하다, 눈에 안 차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눈을 속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돈방석에 앉다, 돈을 물 쓰듯이 하다, 돌아오기가 무섭게, 등(을)돌리다, 뚜껑을 열어 보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졸이다, 마음이 정화되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하다, 막막하다, 말 할 거 없다, 말을 높이다, 말을 놓다, 머리를 굴적이다, 목에 힘을 주다, 목이 빠지다, 무릎을 치다, 물거품이 되다, 미역국을 먹다, 바가지를 굶다, 발 디딜 틈이 없다, 발을 (동동)구르다, 배가 등에 붙다, 배가 터지다, 배꼽(이)빠지다, 배를 잡다, 벽에 부딪히다, 불 보듯 뻔하다, 사서 고생이다, 살이 찌다, 상다리가 부러지다, 세상이 좁다, 세월이 쏜 살 같다, 소 닭 보듯 하다, 소귀에 경 읽기다, 손(을) 놓다, 손가락을 빨다, 손꼽아 기다리다, 손에 익다, 수박 겉핥기다, 수포로 돌아가다, 씻은 듯이 낫다, 알게 모

단계	관용표현
	르게, 애가 타다, 어이가 없다, 입술을 깨물다, 점을 치다,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쥐구멍에 들어가다, 쥐꼬리만 하다, 찬물을 끼었다, 첫눈에 반하다, 코가 납작해지다, 코웃음을 치다, 파리만 날리다, 한눈(을) 팔다, 한술 더 뜨다, 허리띠 졸라매다, 혀를 차다, 흥부 놀부
합계	132 항목

이 교재 또한 초급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급으로 올라가면서 관용표현을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도 대부분의 관용표현들을 본문이나 연습문의 문맥 속에 일반 어휘처럼 제시하였다. <어휘 학습> 부분에서 각 단어의 사전적인 뜻만 풀이하거나 <문화> 영역에서 일부 관용표현을 제시하여 한국 문화와 관련 지어 교육하기도 하였다. 고급의 경우는 중급보다 많은 양의 관용표현이 출현한다. <보충 어휘> 부분에서 ‘-이다’ 조사로 끝난 속담 ‘누워서 떡 먹기다’, ‘누워서 침 뱉기다’, ‘수박 겉핥기다’, ‘소귀에 경 읽기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등을 ‘교훈이나 비유를 담은 짧은 구절이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를 의미 설명과 연습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돈방석에 앉다’, ‘목이 빠지다’, ‘파리만 날리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등을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용표현의 의미 해석과 그림을 이용해서 어울리는 관용어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관용표현을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시키고 있으나, 학습자 입장에서 이런 교육 방법으로 학습한 관용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3)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1-6』

연세대 교재는 단계별로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부터 3권까지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초급 학습자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교재와 달리 초급 단계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많은 관용표현들이 중급 상에 해당하는 4권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용표현을 일

반 어휘와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 생활을 담기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관용표현을 대화나 문장 속에 넣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표 3〉 연세대학교 『한국어 1-6』에 수록된 관용표현 목록

단계	관용표현
초급	꿈을 이루다, 마음을 먹다, 마음에 들다, 정신이 없다, 첫눈에 반하다, 한턱 내다
중급	가뭇에 콩 나듯하다, 가슴이 막히다, 기가 막히다, 국수를 먹다, 귀 기울이다, 귀가 닳도록, 길눈이 어둡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꿈도 많다, 낮을 가리다, 낮이 설다, 낮이 익다, 눈에 띄다, 눈이 높다, 눈이 빠지다, 눈코 뜰새 없다, 돈을 물 쓰듯 하다, 두말 앓다, 땀이 비 오듯 하다, 마음 놓다, 마음에 들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열려 있다, 머리를 식히다, 몸이 가볍다, 문이 좁다, 문턱이 닳도록, 물 쓰듯이 하다, 바람을 쐬다, 발이 넓다, 색안경을 끼다, 손이 가다, 손이 크다, 신경 쓰다, 앉으나 서나, 입에 맞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나 깨나, 자리를 잡다, 한눈 팔다,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잔 하다, 한턱 내다
고급	가슴이 아프다, 고배를 마시다, 골머리를 앓다, 골이 깊다, 구미가 당기다, 기가 막히다, 귀담아 듣지 않다, 뉘이 나가다, 눈 뜬 장님, 눈감아 주다, 눈길을 끌다, 눈에 띄다, 눈에 선하다, 눈을 돌리다, 눈을 땔 수 없다, 눈이 가다, 눈코 뜰새 없다, 도마 위에 오르다, 돈을 물 쓰듯이, 마음 놓다, 마음이 맞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줄이다, 마음이 아프다, 마찰을 일으키다, 말을 잃다, 머리 아프다, 문을 닫다, 밀천이 없다, 발 맞추다, 발이 넓다, 뿌리 뽑다, 사람 살리다, 상투를 틀다, 속 썩다, 속을 썩이다, 손꼽아 기다리다, 손끝하나 까딱할 수 없다, 손발이 되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 손을 떼다, 신경 쓰다, 신주단지 모시듯, 싹을 자르다, 썩기를 막다, 앉느니 죽지, 압력을 받다, 약이 되다, 어깨가 무겁다, 열을 올리다, 욕을 보다, 이 잡듯이, 입놀림이 바쁘다, 입씨름 하다, 입이 딱 벌어지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쥐꼬리만큼 하다, 찬물을 끼얹다, 첫눈에 반하다, 체 바퀴를 돌다, 토끼 눈을 하다, 틀에 박히다, 판을 치다, 풀이 죽다, 하늘이 두 쪽 나다, 한눈에 볼 수 있다, 한 몫 잡다, 한잔 하다, 한 탕 하다
합계	121 항목

이 교재는 초급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을 시도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예를 들어 ‘마음을 먹다’를 본문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시간

을 내는 건 가능하던데요.’의 문장으로 제시하고, <어휘> 부분에서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풀이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학습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급 단계에서 번역을 활용해 관용표현을 교육한 것은 본고의 입장에서 이 교재의 장점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급에 해당하는 4권부터 본문의 대화 내용에서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있는데, 예컨대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면 한턱 내세요.’와 같은 문장에서 ‘한턱 내다’를 제시하면서 어떠한 설명이나 확인 학습도 제공하지 않았다. 고급 단계에서도 이처럼 대화 내용에 자연스럽게 관용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 내용만으로 관용표현의 뜻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교재에 처음 제시된 관용표현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학습을 하고 해당 관용표현의 의미를 나중에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관용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중급, 고급 단계로 갈수록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관용표현이 제시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이 고려되지는 않았다.

(4)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1-8』

『세종한국어1-8』은 국립국어원에서 IU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개발하였으며,⁵⁾ 교재의 모든 설명은 한국어로 되어 있다. 현재 발간되어 있는 『세종한국어』 1·2권은 IU의 1급에, 3·4권은 2급에, 5·6권은 3급에 해당되며, 7·8권을 4급에 맞추어 개발하였지만 고급인 5급과 6급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 교재의 어휘는 주제와 관련된 2개의 대화에 따라 2개의 의미 범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앞서 다른 다른 교재에 비해 관용표현의 수가 많지 않으며, 신체에 관한 관용표현은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뜻을 설명하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관용표현은 <어휘와 표현> 부분에서 ‘알고 있는 표현에 표시’하는 난을 두고 그 뜻을 말해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5) ‘IU’는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을 의미한다.

〈표 4〉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1-8』에 수록된 관용표현 목록

단계	관용표현
초급	마음에 들다, 말을 놓다, 밥을 새우다, 수다를 떨다, 신경 쓰다, 한턱 내다
중급	고개를 숙이다, 꿈을 이루다, 날아갈 듯이, 눈이 높다, 눈이 빠지다, 떨 듯이, 마음에 들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겁다, 만나자 이별이다, 면목이 없다, 목숨을 바치다, 목숨을 잃다,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다, 물 쓰듯이, 바가지를 씌우다, 발 벗고 나서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발을 끊다, 발이 넓다, 밥 먹듯이, 세월이 쏜 살 같다, 손꼽다, 손발이 맞다, 손을 벌리다, 손을 잡다, 손이 모자라다, 손이 크다, 애를 쓰다, 얼굴이 두껍다, 열 받다,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입에 오르내리다, 입이 무겁다, 자리를 잡다, 첫눈에 반하다, 코 묻다, 코가 비뚤어지다, 코가 빠지다, 코를 빠뜨리다, 콧대가 세다
합계	48항목

이 교재는 고급에 해당하는 교재가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교재에 비해 관용표현 수가 적으며, 초급에서도 관용표현이 수록은 되었으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급에서는 졸업을 앞둔 상황을 제시하고 졸업을 앞둔 심정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표현> 부분에서 ‘마음이 무겁다’를 ‘쉽하다’, ‘아쉽다’, ‘시원하다’, ‘두렵다/무섭다’ 등 일반 어휘와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뜻을 추측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재에는 다양한 관용표현이 수록되어 있으나 신체 관용표현만 따로 분류하여 <신체 관용어1, 2>에 각 10항목씩을 제시하고 이를 ‘알고 있는 관용표현을 선택하고 그 뜻을 말해 보세요.’라는 지시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어휘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휘 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다. 신체 관련 관용표현만으로 관용표현의 다양성을 대표하여 이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새로운 관용표현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학습자 스스로 관용표현에 대한 평가 및 의미 추측에만 그치고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확인학습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도 교육의 효과 면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라 하겠다.

(5) 李先汉 외 『韓國語1-4』

李先汉 외 『韓國語1-4』는 중국에서 편찬한 2년제 전문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교재로, 4학기에 걸쳐 1권부터 4권을 학습하게 되어 있다. 이 교재는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이며 자습서로도 많이 활용된다. 이 교재에서는 본문마다 뒤에 <어휘 활용>과 <문법 및 관용형>⁶⁾ 부분에서 문법 설명을 제시하고 <문법 활용>에서 일부 관용표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표 5〉 李先汉 외 『韓國語1-4』에 수록된 관용표현 목록

급수	관용표현
초급	고개를 숙이다, 나이를 먹다, 더위를 먹다, 마음에 들다, 말을 놓다, 밤을 새다, 별 볼 일 없다, 손에 땀을 쥐게 하다, 열심히 뛰어다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 주머니를 털다, 헛걸음을 치다, 힘을 주다
중급	끼고 살다, 낮을 잃다, 눈이 높다, 도배를 하다, 몸 둘 바를 모르다, 발 디딜 틈이 없다, 소름이 끼치다, 손가락질 받다, 입에 오르내리다, 입을 다물 수 없다, 찬밥 신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콧대가 높다
고급	없음
합계	26 항목

이 교재는 특이하게도 고급 단계에 관용표현의 제시가 없고 초급과 중급에서 집중적으로 관용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초급에서 다른 교재에 비해 관용표현이 많이 제시되었다. <한국어 2> 1과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다’를 예문 ‘친척들이 다 모여서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에서 제시하고 ‘是指非常有趣的话, 这一惯用语是指在一种很好的氛围中谈非常有趣的话题, 相当于汉语的“谈笑/说笑”’와 같이 중국어로 해석하여 설명하였다. 중급에서는 관용표현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제시하고 초급처럼 의미에 대해서 일일이 해석하는 과정은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그녀는 콧대가 너무 높아요.’를 어휘 부분에서 ‘高傲’로 번역하였다. 이 교재는 관

6) 배규범(2010)은 李先汉 외 『韓國語1-4』에서 나타난 관용표현이 중국어로 번역한 후 “慣用型”과 “慣用句”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용표현의 뜻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그치고 관용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관용표현에 관한 확인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崔羲壽 외 『初, 中, 高級 韓國語』

崔羲壽 외 『初, 中, 高級 韓國語』은 초급 상·하, 중급 상·하, 고급 상·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한국인의 언어 및 생활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교재는 특이하게 관용표현이 초급 상·하부터 대거 제시되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점차 줄어들다가 고급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초급과 중급에서 특히 신체와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에 대해 형태, 의미가 유사한 중국어 관용표현을 함께 학습할 수 있게 한 점이 주목된다. 학습자가 쉽게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교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과 ‘가슴’에 관련된 관용표현만 전체 관용표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시된 관용표현의 종류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된 관용표현을 설명할 때 다른 관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유추하게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관용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표 6〉 崔羲壽 외 『初, 中, 高級 韓國語』에 수록된 관용표현 목록

급수	관용표현
초급	가슴만 태우다, 가슴에 못을 박다, 가슴을 졸이다,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불타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을 앓다, 가슴이 터지다, 가슴이 흐뭇하다, 국수를 먹다, 귀를 기울이다, 뺨두리를 늘어놓다, 눈 감아 주다, 눈에 들다, 눈에 뜨이다, 눈을 뜨다, 눈이 높다, 눈이 맞다,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 눈코 뜰새가 없다, 마음에 걸리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없다, 마음에 차다, 마음은 굴뚝같다, 마음을 굳히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비우다, 마음을 사다, 마음을 쓰다, 마음을 주다, 마음의 눈, 마음의 문을 열다, 마음의 준비, 마음이 가다, 마음이 내키다, 마음이 돌아서다, 마음이 들뜨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쓰이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통하다, 마음이 활기분하다, 바가지 굵다, 바람을 맞다, 발을 빼다, 새 발에 피, 세상을 떠나다, 손에 넣다, 손에 땀을 쥐다, 손에 익다, 손에 잡히다, 손에 장을 지지다, 손에 쥐다, 손을 꿰다, 손을 내밀다, 손을 놓다, 손을 떼다, 손을 빌다, 손을 쓰다,

급수	관용표현
	손을 씻다, 손을 잡다, 손이 모자라다, 손이 크다, 입에 풀칠하다, 입이 가뻐다, 자리가 생기다, 자리를 잡다, 제 눈에 안경, 코가 납작해지다, 콧대가 높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중급	가슴을 허비다, 겁에 질리다, 귀를 기울이다, 금이 가다, 기가 막히다, 낯을 앓다, 마음에 걸리다, 마음을 읽다, 마음이 풀어지다, 말을 걸다, 말을 뺏다, 맥이 빠지다, 목소리가 흘러나오다, 배가 부르다, 배를 채우다, 시비를 걸다, 자리를 잡다
고급	없음
합계	95 항목

이 교재는 다른 교재보다 초급, 중급 단계에서 관용표현을 많이 제시하였다. 특히 전체 관용표현의 70%가 초급에서 제시된 반면에 고급 단계에서는 관용표현이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출판된 두 교재가 공통적으로 고급 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⁷⁾ 이 교재의 경우 한국어 관용표현 중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감정이 담긴 ‘마음/가슴’ 등 추상적인 어휘가 포함된 관용표현을 초급 단계에서 과도하게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라 하기 어렵다. 반대로 관용표현의 학습량이 증가해야 하는 중, 고급 단계에서는 오히려 관용표현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줄고 있는 점도 문제로 보인다.

2.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표현 교육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의 관용표현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관용표현의 선정과 난이도 설정의 문제

6종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목록을 살펴보면 총 584개의 관용표현 중에

7) 중국에서 만들어진 교재인 만큼 고급 단계의 관용표현을 교재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어 적절히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서 3종 이상의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난 관용표현은 전체의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 교재마다 관용표현 목록 선정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3종 이상의 교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관용표현

	편 찬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국립국어원			李先漢 외			崔羲壽 외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1	가뭇에 콩 나듯이	○					○	○											
2	기가 막히다	○					○	○	○										○
3	꿈을 이루다	○				○	○						○						
4	눈에 선하다	○					○			○									
5	눈(이) 높다	○				○			○			○						○	
6	눈(이) 빠지다					○			○			○							
7	마음(에) 들다	○		○	○	○	○	○	○	○	○	○	○	○	○			○	
8	마음이 맞다	○				○				○									
9	발이 넓다	○				○			○	○			○						
10	손이 크다			○		○			○			○						○	
11	신경 쓰다	○	○			○			○	○	○								
12	자리를 잡다								○				○						○
13	찬물을 끼었다			○			○			○									
14	첫눈에 반하다	○	○				○			○		○							
15	한턱 내다	○				○			○	○		○							

위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6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모두 나타난 관용표현은 ‘마음(에) 들다’ 1개이다. 5종의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것은 ‘눈(이) 높다’, ‘손이 크다’의 2개이고, 4종의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것은 ‘기가 막히다’, ‘발이 넓다’, ‘신경(을) 쓰다’, ‘첫눈에 반하다’, ‘한턱 내다’의 5개이며, 3종의 교재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가뭇에 콩 나듯이’, ‘꿈을 이루다’, ‘눈에 선하다’, ‘눈이 빠지다’, ‘마음이 맞다’, ‘자리를 잡다’, ‘찬물을 끼었다’의 7개이다. 각 교재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관용표현 목록과 교육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는 해도 6종 교재의 공통 관용표현이 1개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를 포함하여 3종 이상의 교재에 나타난 관용표현도 모두 15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관용표현의 목록이 교재마다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나아가 교재에 따라 제시된 관용표현의 양의 차이도 적지 않다. 고려대 162개, 서울대 132개, 연세대 121개, 국립국어원 48개,⁸⁾ 李先漢 외 26개, 崔義壽 외 95개로, 교재별로도 그러하지만 특히 국내 교재와 중국의 두 교재의 편차가 크다. 단계에 따라 학습되는 관용표현의 양도 물론 교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관용표현 목록이 양적·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⁹⁾

이처럼 관용표현 목록이나 양의 차이보다 더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관용표현의 난이도 선정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첫눈에 반하다’의 경우 고려대 교재는 초급 단계에, 서울대와 연세대 교재는 고급 단계에, 세종한국어는 중급 단계에 수록되어 있으며,¹⁰⁾ 중국에서 제작된 두 교재에는 아예 실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관용표현이 교재마다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수준이 완전히 다른 학습 단계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용표현의 난이도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관용표현 교육에서 학습 단계에 따른 난이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학습자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에 실린 관용표현들은 한국어 교재의 여러 등급에 일관성이 없게 배열되어 있다. 학습자의 이해력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교재에서 관용표현의 위치를 정하여 학습하도록 한다면 관용표현 교육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관점보다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으로써 교재 출현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관용표현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8) 국립국어원 교재는 고급 단계가 없기 때문에 수록된 관용표현의 수가 현저히 적다.

9)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고려대는 2, 3권, 서울대는 고급 1권, 연세대로 고급 1권, 세종한국어는 중급 1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2)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및 내용

다음은 교재를 통해 파악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과 내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관용표현의 학습 시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6종의 교재 분석에서 대부분의 교재가 초급단계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崔義壽 외 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재들은 초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관용표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그치고 관용표현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급에 가서야 관용표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관용표현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의미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초급 단계에서 그 교육을 보류하고 중급 단계 이상부터 교육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동일 문화권에서 한자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교류해 왔기 때문에 한국어 관용표현의 학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초급에서의 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초급부터 적절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은 중급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관용표현 학습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재에 제시된 관용표현의 양에 비해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관용표현은 매우 적다는 점도 문제로 생각된다. 지문이나 대화 등에서 관용표현의 제시만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든 이를 특정하여 교육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상을 대부분의 교재가 보여준다. 예컨대 국립국어원 교재의 관용표현 목록은 총 48개지만 실제로 특정하여 뜻풀이건 용법이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3개로 전체 관용표현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다른 교재는 그 편차가 더욱 크다. 관용표현의 교육은 교재를 통한 직접적인 교육보다 교수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할 것이다.

한편 관용표현의 제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관용표현을 기타 단어나 일반문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새 단어>에서 ‘살이 찌다, 돌아오기가 무섭게’ 등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관용표현을 사전적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기타 표현을 익히는 예문 속에 포함시켜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추측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관용표현이 기타

언어와 비교할 때 의미와 형태·통사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어려우며 관용표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어렵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표현, 언어 표현, 관용표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용표현과 기타 표현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그것을 교육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¹¹⁾

또한 관용표현의 제시 형태의 문제도 있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이(가) 없다’의 제시 형태를 보면 ‘어이 없다’, ‘어이없다’, ‘어이가 없다’ 등으로 제시되며, 대부분의 교재에서 기본형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대화문이나 연습 문제 속에서 맥락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관용표현의 기본형 제시는 한국어 교재들 간의 형평성과 학습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사전에서 제시된 기본형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어이(가) 없다’는 주격조사 ‘가’가 맥락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괄호호로 처리해 그 생략이 가능함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런 면에서 ‘눈(이) 높다’를 서울대 교재에서 기본형은 물론이고 통사적 사용까지도 알기 쉽게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나, 고려대 교재 중급 단계에서 영어 해석과 함께 제시한 점은 학습자 입장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²⁾

관용표현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각 교재들은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6종 한국어 교재 중에서 대부분의 교재가 초급 단계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급,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따로 관용표현을 다루어 교육하는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관용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대화문이나 연습 문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관용표현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학습해야 하는 어휘이지 결코 저절로 습득되는 어휘가 아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용표현의 뜻으로 맞는 것을 연결하는’ 활동이 있다. 그럴 경우 과연 한국어로 된 해석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쉬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11) 물론 관용표현을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서 <관용어> 또는 <관용 표현>으로 다룬 경우에는 관용표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제시 방법 및 활동, 확인 등에서 여전히 뚜렷하지 못하다.

12) 관용표현을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그 통사적인 사용과 학습자의 모국어로 된 번역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야말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의 바람직한 예라 할 것이다.

지 의문이다. 한국어 뜻풀이에도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단어들 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관용표현 교육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점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특히 관용표현의 관용 의미를 한국어로 해석하였을 때 정확한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가장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방향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¹³⁾ 본고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관용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체계적 관용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배치한 후 각 단계에서 적절한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아울러 관용표현의 난이도 설정이나 교수 및 학습 방법에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1. 관용표현의 난이도 설정

앞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관용표현의 단계별 난이도 배분이 다르다는 점이다. ‘첫눈에 반하다’와 같이 동일한 관용표현이 교재마다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수준이 완전히 다른 학습 단계

13) 본고의 목적은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았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관용표현의 난이도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의미의 투명도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관용표현을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어휘의 수준은 국립국어원에서 2003년 5월에 발표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등급 선정 결과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선정과 등급 판정은 말뭉치를 통한 어휘의 빈도 조사와 전문가의 판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바, 이후 한국어교육 관련 논의들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흔히 활용되고 있다. 이 목록은 1단계 982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 총 5,965개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1단계는 A, 2단계는 B, 3단계는 C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각 관용표현에 포함된 어휘의 등급에 따라 어휘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어휘 수준 상’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어휘 등급 기준 C에 해당하거나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어휘를 포함한 경우이고, ‘어휘 수준 중’은 어휘 등급 기준 B에 해당하는 어휘를 포함한 경우이며, ‘어휘 수준 하’는 어휘 등급 기준 A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관용표현에 포함된 어휘의 등급이 다른 경우는 상위의 등급인 어휘에 따라 어휘 수준이 결정된다. 예컨대 ‘꿈을 깨다’와 같이 ‘꿈’은 어휘 등급 A이고 ‘깨다’는 B인 경우 B등급 어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수준 중’으로 분류한다.

한편 의미의 투명도는 문금현(1996) 등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관용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의 원래의 의미가 전체 의미에 반영되는 정도를 말하며,¹⁴⁾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구분할 때 대개 보편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고 또한 이 의미의 투명도가 관용표현의 난

14) 이에 따르면 불투명한 유형은 어휘의 원래 의미와 관용 의미와의 관계성이 강하여 원래 어휘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관용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고, 반불투명한 유형은 어휘의 원래 의미와 관용 의미 사이에 관계성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으로 전자에 의해서 후자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표현이며, 불투명한 유형은 어휘의 원래 의미와 관용 의미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도 설정에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이라 판단하며, 이에 따라 관용표현을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의 유형으로 나눈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표 8>의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전술한 중국인 학습자의 인지도를 함께 고려하여 관용표현 난이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어휘의 수준이나 의미의 투명도만으로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나는 이들을 분류하는 사람이 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난이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의미의 투명성은 세대나 개인의 지식 정도, 직업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난이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의 연상 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다. 말하자면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표현의 존재를 인지하는지, 직역했을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 학습자의 인지도를 고려한 관용표현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준거에 따라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8>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관용표현 난이도 설정

기준	어휘 수준 하	어휘 수준 중	어휘 수준 상
반투명	초급	중급	고급
반불투명	중급	중급	고급
불투명	고급	고급	고급

초급으로 분류되는 관용표현은 어휘 수준 하, 반투명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중국어로 직역 가능하며, 어휘 수준이 낮고 관용성이 약한 조합이다. 예를 들어 ‘눈이 높다’는 앞서 분석한 6종 교재 중에서 출현한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으로 한·중 관용표현 사전에 ‘眼光高’(눈빛이 높다)로 제시되어 있다. 형태상으로 직역이 가능하고 어휘의 수준도 하에 해당하여 초급 단계의 관용표현으로 분류된다.

〈표 9〉 초급으로 분류된 관용표현의 예

한국어		중국어
눈이 높다		眼(光)高
초급	지역이 가능하며 의미의 투명도는 반투명, 어휘 수준은 하에 해당	
예) 그 여자는 눈이 높아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¹⁵⁾		
那个女人 眼光很高 一般的男人她都看不上。		

한국어 초급 단계는 기초 어휘 학습 단계이므로 의미 투명도가 반투명에 해당하는 관용표현들을 중심으로 하여 관용성이 약하면서 많이 쓰이는 관용표현을 교육해야 한다. 초급 단계의 관용표현들은 중국어와 대조하였을 때 그 형태와 의미가 대응이 되는 관용표현을 제시한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관용표현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단계의 관용표현은 중국어로 지역이 거의 가능하며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만으로 유추 가능한 관용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이나 소재를 제시하여 간단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급 관용표현은 어휘 수준 하, 반불투명의 조합 또는 어휘 수준 중, 반투명/반불투명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대체로 초급 관용표현에 비해 의미 투명도가 약하고 어휘 수준이 높은 관용표현들로, 중국어와 대조하였을 때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관용표현을 선정한다. 예컨대 한국어 관용표현 ‘발이 넓다’는 앞서 분석한 6종의 한국어 교재 중 4종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출현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이다¹⁶⁾. ‘발이 넓다’는 한·중 관용표현 사전에서는 ‘见多识广’(보고 들은 것이 많고 식견이 넓다) 또는 ‘交际广’(교제 범위가 넓다)로 제시되어 있으며 <표 10>의 예문과 같이 활용되는데 중국어와 한국어 관용표현의 형태를 비교하였을 때 ‘넓다’와 ‘广’은 형태상으로 동일하지만 ‘발’은 중국어로 ‘交际’(사교적이다)로 번역하여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 어휘 수준은 하에 해당되지만 의미의 투명도는 반불투명에 속하여 중급 수준

15)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속담/관용구. <http://www.dic.naver.com>

16) ‘발이 넓다’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 교재에 나타났다.

에 포함된다.

〈표 10〉 중급으로 분류된 관용표현의 예

한국어		중국어
발이 넓다		交际广
중급	지역이 어려우며 의미의 투명도는 반불투명, 어휘 수준은 하에 해당	
예) 영희는 그쪽 방면으로 발이 넓어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英姬 交际很广 在那个领域没有不认识的人。		

중급 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은 지역이나 의미 전이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으로 문맥에 따라 축자적인 의미와 관용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다소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으며, 대화 상황 속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추상어나 관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고급으로 분류되는 관용표현은 어휘 수준이 높거나 의미 투명도가 불투명한 경우이다. 예컨대 한국어 관용표현 ‘기가 막히다’는 앞서 분석한 6종의 한국어 교재 중 4종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여 역시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인데,¹⁷⁾ 이 표현은 두 가지의 관용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가 막히다’에 대한 번역은 한·중 관용표현 사전에서 중국어 대응 표현을 찾을 수 없다. ‘기가 막히다’와 같이 두 가지의 관용 의미를 가진 관용표현은 중국어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의 뜻인 경우 중국어로의 전달 의미는 ‘啼笑皆非’인 것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뜻인 경우 중국어로의 전달 의미는 ‘了不得(不得了)’인 것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어휘의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고 의미의 투명도는 불투명에 속하여 고급 수준에 분류된다.

17) ‘기가 막히다’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최희수 외 한국어 교재에 나타났다.

〈표 11〉 고급으로 분류된 관용표현의 예

한국어		중국어	
기가 막히다		a	啼笑皆非,
		b	了不得(不得了)
고급	지역이 불가능하며 의미의 투명도는 불투명, 어휘 수준 상에 해당		
예) a: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우리는 할 말을 잊었다. 那个孩子的行动让人啼笑皆非.			
b: 철수는 기가 막히게 외국어를 구사한다. 哲珠的外语水平不得了。			

고급 단계에서는 축자 의미와의 유연성이 약하고 자의성이 강하여 축자 의미에 의해서는 관용 의미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중국어와의 연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관용성이 높은 표현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며 한자어를 포함한 고급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특히 고급에서는 속담이나 관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언어 교육에서는 교육 목표와 달리 관용표현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라 하여 한국어의 모든 관용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 빈도가 높고 축자적 의미의 관계가 불투명한 표현들까지 고급 단계에서 교육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관용표현의 단계별 교육

초급에 해당하는 관용표현의 어휘 수준은 하, 의미의 투명도는 반투명의 조합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용표현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의미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 중국어로 직역가능하며 중국어에 대응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교육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명사를 활용한 관용표현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크다’, ‘머리를 쓰다’ 등을, 동일한 용언을 활용한 관용표현으로 ‘마음에 들다’, ‘눈에 들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와

대조하였을 때 비교적 동일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내용이 될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표현의 대조만으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급 관용표현의 학습 방안을 구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어휘 제시 단계에서 관용표현을 구분하고¹⁸⁾ 중국어 번역을 함께 제시한다.¹⁹⁾ 이와 같은 방법은 한국어로 의미를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 시간이나 의미 전달과정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 ② 중국어로 관용표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국어로 예문도 함께 제시한다.²⁰⁾ 관용표현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앞으로의 관용표현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된다.
- ③ 해당 표현이 관용표현인 것을 밝히고 예문을 중국어 번역과 함께 제시한다.²¹⁾ 이는 관용표현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해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 ④ 확인 학습 단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 속에서 관용표현을 포함시킨다. 본문의 내용 및 관용표현의 의미 등을 연습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습 문제에서 관용표현의 반복적인 출현은 학습한 내용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은 문맥을 활용한 관용표현 교육으로 문맥과 상황을 통해 관용표현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는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문맥에 나타난 어휘의 이해도가 초급에 비해 높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어 관용표현과 중국어 대응 표현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언어

18) 관용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관용표현과 일반 어휘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예컨대 앞에서 제시된 ‘눈이 높다’의 경우 중국어 번역 ‘眼(光)高’를 제시하는 식이다.

20) 예컨대 ‘惯用语在意义上都具有双层次性, 具有本意之外还有比喻的意思’(관용표현은 중국어의 ‘惯用语’를 말합니다. ‘穿小鞋’, ‘吃喜糖’, ‘戴高帽’와 같은 표현입니다)와 같은 설명을 제공한다.

21) 예컨대 ‘그 여자는 눈이 높아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와 같은 예문을 ‘那个女人眼光很高一般的男人她都看不上’와 같은 중국어 번역과 함께 제시한다.

사이의 차이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중급 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을 할 때 모국어로 된 해석, 시각적인 해석 등을 활용해야 한다. 초급과 마찬가지로 학습 관용표현의 체언과 용언의 변화를 주어 연관 관용표현의 이해를 통해 관용표현 지식 습득의 확장을 시도한다. 중급 단계의 학습 내용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관용표현들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 적합한 관용표현은 어휘 수준 하, 중, 의미의 투명도는 반투명과 반불투명의 조합으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급 관용표현의 학습 방안을 구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어휘 제시 단계에서 일반 표현과 관용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관용표현은 예문을 통해 그 중의적인 사용을 보여 준다.²²⁾
- ② 본문에서는 각주의 방식으로 관용표현의 번역을 제시함으로써²³⁾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표현을 일반 표현과 차별화하여 보여준다.
- ③ 연습 단계에서는 주제어와 관련된 그림과 관용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며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대해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한국어를 해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인상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④ 연습 단계에서 제시한 관용표현에 대한 해석을 중국어로 간략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문장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관용표현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고급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은 문화 배경 설명을 통한 관용표현 교육이며 고급 단계의 관용표현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문맥의 제한을 받는 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관용표현은 어휘의 수준이 높

22) 예를 들어 ‘나이를 먹다’, ‘손발이 맞다’, ‘발이 넓다’ 등 어휘의 뜻과 관용 의미를 설명한 다음 사전적인 의미와 관용 의미의 예문을 제시한다.

23) 예를 들면 본문에 나타난 “어쩐지 제 귀가 가렵더라고요”와 같은 예에서 ‘귀가 가렵더라고요’에 각주 표시를 하고, 아래 각주에서 ‘귀가 가렵다: 耳根发痒’와 같이 관용표현의 번역을 제시한다.

고 의미의 투명도는 불투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바가지를 굶다’, ‘한눈을 팔다’, ‘콩밥을 먹다’ 등의 관용표현은 의미 전달 단계에서 어휘로만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하며 중국어의 대응표현이 없기 때문에 의미 추측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지시켜야 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사진 자료나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급 단계에서는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용표현이 많아 관용표현에 관련된 문화나 역사적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관용표현 교육은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설명하여 문화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관용표현 교육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급 관용표현의 학습 방안을 구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어 제시 단계에서 관용표현이 사용되는 문맥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각각의 예문을 제시한다.²⁴⁾ 그리고 그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어로 설명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② 고급 단계 학습자인 점을 고려하여 관용표현의 번역을 제시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상황의 예문을 통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확인 단계에서 본문 내용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여 이와 함께 관용표현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식으로 한다.
- ④ 고급 단계에서는 관용 의미에 집중하면서 서로 다른 상황의 예문을 함께 제시한다. 교사는 주어진 정답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어진 예문에 대한 학습자의 한국어 또는 중국어로 된 해석을 듣고 관용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24) 앞의 <표 11>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한자어라는 공통의 소통 수단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이 활용되는 주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와 현황을 고찰하였다. 한국어 교육기관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및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재와, 중국에서 제작되어 널리 사용되는 李先汉 외, 崔羲壽 외의 두 교재를 대상으로 관용표현의 수록 현황과 제시 방식, 학습 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크게 관용표현의 선정과 난이도 설정의 문제,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교재에 따라 관용표현의 목록 선정과 수록된 관용표현의 양, 관용표현의 난이도 선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지적되었고, 후자에서는 관용표현의 학습 시기와 관련하여 초급 단계에서의 교육의 보류, 제시된 관용표현의 양에 대비되는 실제 관용표현 교육의 분량, 관용표현의 제시 방법, 관용표현의 구체적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체계적 관용표현 교육을 할 것과,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관용표현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의미의 투명도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학습자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관용표현의 난이도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초급 단계에서는 관용표현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의미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 중국어로 직역가능하며 중국어에 대응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중국어 번역을 활용하여 교육하며, 중급 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은 문맥을 활용한 관용표현 교육으로 문맥과 상황을 통해 관용표현을 학습시키며, 고급단계의 관용표현 교육은 문화 배경 설명을 통한 관용표현 교육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앞으로도 관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교재 구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제언, 중국인을 위한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하여 그 교육 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문제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위규, 「우리말 관용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구효진,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문창, 「국어 관용어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김 몽,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선정 외,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2006.
- 김선정 · 허용, 「한국어 교재 선택법 및 학습지도안 작성법」, 『이중언어학』 16-1, 이중언어학회, 1999.
- 김선정,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한글파크, 2010.
- 김중택, 「이디엄(idiom)연구」, 『어문학』 25, 한국어문학회, 1971.
- 김충실 외,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도서출판 박이정, 2006.
- 김한샘, 「현대 국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문금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1, 이중언어학회, 1998.
-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1999.
- 문금현, 「구어적 관용표현의 특징」, 『언어』 25-1, 한국언어학회, 2000.
-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6-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 문종선, 「국어관용어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민현식,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재고」,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미학회, 2003.
- 박소연,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 · 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영준 외, 『관용어사전』, 태학사, 1997.

- 박문식,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2014.
- 비소성,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배규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 목록 선정과 단계별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사전』, 도서출판夏雨, 2014.
- 서 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심재기,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논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 오성아,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오세운, 「우리말 관용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유경화, 「한국어 관용표현 분석과 목록 선정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유덕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기문, 『속담사전』, 일조각, 1997.
- 이영희, 「국어의 관용적 표현에 의한 의미의 다양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영숙, 「신체 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 1992.
- 이영숙, 「국어 관용어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준호,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9, 문법교육학회, 2008.
- 이충우, 「국어 어휘 교육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9-1, 국어교육학회, 1999.
- 전혜영,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 정옥주, 「한국어 관용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현용,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2000.
- 최윤곤,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관용어 목록」, 『한국사상과 문화』 3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한재영 외,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2010.
- 허 양, 「한국어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후문옥,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황미연,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표현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황주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葛本仪, 『实用中国语言学词典』, 青岛出版社, 1992.
- 葛本仪, 『汉语词汇研究』, 外语教学研究出版社, 2006.
- 姜信道, 『韩中谚语惯用语词典』,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
- 金玉兰, 『韩汉谚语惯用语成语小词典』, 商务印书馆, 2007.
- 金忠实·金恩实·金英实, 『中韩·韩中惯用语精编』, 上海海文音像出版社, 2005.
- 苏新春, 『中国语言学大词典』, 江西教育出版社, 1991.
- 李龙海, 『韩汉翻译教程』,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9.
- 柳英绿, 『汉中翻译课程』, 延边大学出版社, 2009.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1』, (주)교보문고, 2008.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2』, (주)교보문고, 2009.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3』, (주)교보문고, 2010.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4』, (주)교보문고, 2010.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5』, (주)교보문고, 2010.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6』, (주)교보문고, 2010.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1』, 국립국어원, 2013.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2』, 국립국어원, 2013.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3』, 국립국어원, 2013.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4』, 국립국어원, 2013.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5』, 국립국어원, 2014.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6』, 국립국어원, 2014.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7』, 국립국어원, 2014.
- 국립국어원, 『세종한국어8』, 국립국어원, 2014.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A』, (주)투판즈, 2013.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B』, (주)투판즈, 2013.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2A』, (주)투판즈, 2013.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2B』, (주)투판즈, 2013.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3A』, (주)투판즈, 2015.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3B』, (주)투판즈, 2015.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4A』, (주)투판즈, 2015.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4B』, (주)투판즈, 2015.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5A』, (주)투판즈, 2012.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5B』, (주)투판즈, 2012.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6A』, (주)투판즈, 2015.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6B』, (주)투판즈, 2015.
- 연세대 한국어 학당, 『연세 한국어1』, 연세대출판부, 2007.
- 연세대 한국어 학당, 『연세 한국어2』, 연세대출판부, 2007.
- 연세대 한국어 학당, 『연세 한국어3』, 연세대출판부, 2008.
- 연세대 한국어 학당, 『연세 한국어4』, 연세대출판부, 2008.
- 연세대 한국어 학당, 『연세 한국어5』, 연세대출판부, 2009.
- 연세대 한국어 학당, 『연세 한국어6』, 연세대출판부, 2009.
- 李先汉, 『韓國語1』, 民族出版社, 2001.
- 李先汉, 『韓國語2』, 民族出版社, 2001.
- 李先汉, 『韓國語3』, 民族出版社, 2004.
- 李先汉, 『韓國語4』, 民族出版社, 2004.
- 崔羲寿, 『初级韩国语 上』, 延边大学出版社, 2001.
- 崔羲寿, 『初级韩国语 下』, 延边大学出版社, 2000.
- 崔羲寿, 『中级韩国语 上』, 延边大学出版社, 2006.
- 崔羲寿, 『中级韩国语 下』, 延边大学出版社, 2006.
- 崔羲寿, 『高级韩国语 上』, 延边大学出版社, 2003.
- 崔羲寿, 『高级韩国语 下』, 延边大学出版社, 2003.

❖ ABSTRACT

Suggestions for the Education of Korean Idiom Focusing on Chinese Learners

Jin, Meng
Lee, Yeongyeong

Broadly speaking, since Idiom is not a combination of simple words but often utilizes a third meaning,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m in a dictionary onl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specific training on Idiom that must be made in order for Korean learner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other people fluently and smoothly. The school aims to find effective Idiom examples and curricula for Chinese learners.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reality and status of Korean Idiom through an analysis of major Korean textbooks that are widely used by Chinese learners. Among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there are two widely used textbooks, produced in China, and published by Kore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These textbooks, examined in the present state, offered a model of presentation and learning of Idiom, as well as examples of uses and analyzed problems within the text. As a result, I proposed an effective Idiom education plan for Chinese learners based on the level of vocabulary included in Idiom, transparency of meaning, and a learner-centered education on Idiom.

Key Words : Idiom,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teaching materials, Chinese Learners, Lexical level, Transparency of meaning, learner-centered education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

